



한덕수 국무총리, 부산불꽃축제 관련 인파 안전관리 철저 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1월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‘제18회 부산불꽃축제’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경찰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.
 - 이번 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, 돌발상황과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, 입·출구 분산, 안전선 설치,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 - 특히, 바다에서 진행되는 축제임을 감안해 해상관람선 및 방파제 등 해상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,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충분한 소방시설 확보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
 -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송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것
 -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,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
 -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행사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, 행사 종료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
- 아울러, 한덕수 국무총리는 “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안전관리자의 질서유지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팀장	이대섭 (044-200-2365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애 (044-200-2342)

